



함평골프고 3학년 '슈퍼루키' 신지에(18·하이마트·사진)가 자신의 학교가 있는 함평에서 KLPGA 우승에 도전한다.

KLPGA 스타투어 3차대회 27일 함평 다이너스티CC서 개막

'슈퍼 루키' 신지에 시즌 3승 도전

홍진주·홍란 등 국내 정상급 총출동 MBC ESPN서 쏠 라운드 생중계

이번 대회에는 국내 프로 117명과 아마 추어 3명 등 총 120명이 출전해 승부를 가린다.

더욱이 신지에에는 올 시즌 9개대회에 출전, 우승 2회, 준우승 2회, 3위 2회 등 8개 대회에서 '톱10'에 들며 상금 2억4천여만 원을 획득, 상금순위 1위와 대상, 신인왕 0순위에 올라있다.

심이 모아지고 있다. 이외에 SK엔터테인먼트에서 감각의 생애 첫 우승을 일궈낸 뒤 한껏 자신감이 올라 있는 열장 골퍼 홍진주(23·이동수골프)와 신세계 제28회 KLPGA선수권대회에서 우승문턱에서 좌절한 홍란(20·이수건설)의 도전도 만만찮다.

KPGA 스타들도 전남 온다

중흥S-클래스 골드레이크 오픈 28일 개막

강경남 시즌 2번째 우승 노려

지난해 신인왕 출신으로 한국프로골프의 대표적 유망주인 강경남(23·삼화저축은행·PRGR)이 시즌 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.

을 맞은 강경남은 최근 끝난 코오롱·하나은행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어렵게 3위에 머물렀지만 물오른 샷 감각을 자랑하고 있다.



김미현 7언더파 4위 선두 카리웹과 6타차

LPGA 통스드릭스챌린지 3R

김미현(29·KTF)이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코리아군단에 10승을 안겨 줄 마지막 희망으로 나섰다.



환상의 리듬체조 로프 연기

2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2회 유럽리듬체조 선수권대회에서 불가리아의 류보프 카슈나 선수가 환상적인 로프 연기를 펼치고 있다.



유럽, 라이더컵 3연패 눈앞

이로써 유럽은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4점만 추가하면 2002년과 2004년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라이더컵을 품에 안게 된다.

데이비드 톰스조를 1홀차로 물리쳐 이번 대회 4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는 활약을 펼쳤다.

크-잭 존슨조를 4홀을 남기고 5홀을 앞서는 완승을 거뒀다.

양용은 우승

한국오픈골프 최종

양용은(34·케이지디자인·사진)이 4년 만에 국내 골프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.

/최재호기자 lion@kwangju.co.kr